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www.stfrancisk.org

**청년 website:** facebook.com/gropus/yagfyny

**Email:** 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Fr. Andrew Reitz, O.F.M.

**지도신부:** 김성인 미카엘(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michaelkofm@gmail.com

**지도수녀:** 김도경 첼레스틴(투스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ohanleosb@gmail.com

**사목회장:**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이사 49,3-6

[화답송] ..... 시편 40(39),2ㄱ과 4ㄱ.7-8ㄱ.8ㄷ-9.10(㉠ 8ㄴ과 9ㄱ)



(후렴)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굶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밀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가게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  
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  
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1코린 1,1-3

[복음환호송] ..... 요한 1,14.12 참조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복음] ..... 마태 3,13-17

- [성가안내]
- 입당성가 [160] 하느님의 어린양
  - 봉헌성가 [35] 나는 포도나무요
  - 성체성가 [497] 거룩하신 성사여
  - 파견성가 [39] 하나 되게 하소서

## 미사 봉헌

영미사	봉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미사</li> <li>이영우, 이태묘</li> <li>김영우, 요셉, 강견대, 마리아 부부</li> <li>이진수</li> <li>엄창석, 요한, 정인봉, 박은남</li> <li>김영복, 아네스</li> <li>박난성, 요셉프란치스코</li> <li>황 안드레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상홍, 스테파노</li> <li>김지영, 유스티나</li> <li>이 아네스</li> <li>엄청자, 요세피나</li> <li>안영옥, 손명희, 김경련</li> <li>양미숙, 마리아</li> <li>황준호, 스테파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미사</li> <li>김영숙, 카타리나, 김순한, 루시아</li> <li>김옥지, 아가다, 천마지, 마가렛</li> <li>이진자, 세실리아, 이재호, 클레멘트</li> <li>이종환, T.아퀴나스, 이정주, 소화데레사</li> <li>김동희, 헬레나, 정창동, 폴리나</li> <li>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li> <li>박민재, 아그네스</li> <li>김소영, 사비나</li> <li>이은경, 헬렌</li> <li>신윤길, 요셉, 신애송, 헬렌</li> <li>민덕미, 안젤라</li> <li>김세호</li> <li>박 아그네스, 이지훈, 아네스</li> <li>김동희, 헬레나, 이상진</li> <li>민재인, 데레사, 민유미, 카타리나</li> <li>장철순, 장혜윤, 부부</li> <li>Timothy Dolan, 추기경, 모든 아프신 분들</li> <li>이민영, 유스티나</li> <li>윤동진, 프란치스코, 김승애, 클라라</li> <li>김중화, 필립보, 김혜월, 알비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업희</li> <li>양업희</li> <li>양업희</li> <li>양업희</li> <li>양업희</li> <li>이지연, 안나레지나</li> <li>박기목, 알버트</li> <li>김지영, 유스티나</li> <li>양업희</li> <li>양업희</li> <li>성모회</li> <li>방, 마리스텔라</li> <li>양미숙, 마리아</li> <li>이사라</li> <li>민정신, 아폴로니아</li> <li>박기목, 부부</li> <li>김경련, 울릿다</li> <li>방명석, 제노베파</li> <li>강호영, 안드레아</li> <li>강호영, 안드레아</li> </ul>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영어복음	보편지향기도	봉헌	복사	성찬봉사
1월 19일	이영노 울리안나	김희진 마르가리타	김보희 클라라	황세유 루카스	박신희 리나	이서원 강혜숙	신정목 오석진	신윤길, 신애송, 장혜윤, 이지훈 이지연, 김승애, 김영숙, 김종선
1월 26일	김진섭 야고보	조정환 제랄드	원혜경 아네스	김진희 아델라	박시현 마리아	조완준 박정은	한창희 박지현	이규완, 이은경, 이정현, 김지영 백이백, 이서원, 박정자, 김영희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두 번째 토요일 오후 6:00 아래 성당
고해성사	미사 30분 전 아래성당 고해소
혼인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세례	사무실 : 347-834-5784

[복음 묵상]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오늘 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두 표현에 주목하게 된다. 하나는 “하느님의 어린양”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하느님의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사 안에서 죄의 사함을 청하며 바치는 ‘속죄 양’과 연결된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봉헌되는 이 양의 표상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극복된다는 ‘대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와 봉헌되는 속죄양과는 달리 기꺼이 당신을 바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요한 복음사가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음을 강조한다(요한 1,10). 왜냐하면 세상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세례자 요한은 “어린양”의 모습 안에서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예수님의 진정한 신원을 “보라”고 초대한다.

너무나 약해보이는 하느님의 모습이 때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의 속마음에는 강력한 하느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다.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부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며 정해진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힘차게 징벌하시는 하느님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심지가 깜박거린다 하여 꺼버리지 않고 갈대가 흔들린다 하여 잘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나무가 열매를 못 맺는다 하여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거름을 주고 더 큰 애정으로 돌보시는 분”이시다. “못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을 제물로 내어 놓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만나게 될 분은 바로 이러한 하느님이시다.

‘어린양’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예수님의 가실 길을 보여준다. 따라서 ‘어린양’의 모습 안에서 그리고 ‘비움’을 통해 일하는 하느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하느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Clear Laser CITY CLINIC**  
클리어 레이저 씨티 클리닉

임상 경험이 풍부한 MD들이 시술합니다.  
미백 레이저 - BBL, CO2, HALO  
리프팅/탄력 - 울페라, 써마지, 실리프팅  
윤곽관리 - 보톡스, 필러, 스컬트라  
웨딩케어, 맨즈케어, 메디컬스킨케어

WED-SUN : 10AM-7PM  
501 5TH AVE STE #2011, NEW YORK, NY 10017  
**212.697.1802**  
ID: clearlasercity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자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당)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COMPASS**  
Helena Park  
Real Estate Broker  
helena.park@compass.com  
212-289-8899  
110 Fifth Avenue, New York, NY 10011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 370-0394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 58th St.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 11am-11pm / Sun: 12pm-9pm

**인쇄·책출판**  
당일 인쇄가능  
EODM, Mailing Service / Yelp Email Marketing  
T. 212. 971. 0212 / 268. 2776  
208 W. 29TH ST., # 203, NY, NY 10001

**더큰집**  
32W, 32nd Street, New York  
212-216-9487

**원조**  
23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그림온. miss KOREA**  
10W 32nd Street, 1,2,3 FL, NY  
212-888-6765

광고주를 찾습니다  


✓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아버지께 기도하신 대로 주님과 아버지께서 하나이시듯 주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되기를 바라셨나이다.
- 저희는 같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같은 주님을 모시면서도 서로 갈라져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나이다.
- 이제 저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가 되고자 하오니
- 저희를 도와주시어 미움과 불신을 버리고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환영합니다]**

우리 성당에 처음 방문하신 분,  
전입하신 분, 환영합니다!  
: 다미아노 홀(성당 밖 좌측 20m)

**[오늘의 정기모임 및 행사]**

- **꾸리아** : 11시, 아래성당
- **양업회** : 11시, 코리안 컨퍼런스 룸
- **사목회** : 11시15분, 2층 컨퍼런스 룸
- **경애원 후원금접수** : 다미아노홀 입구
- **2차 헌금** : 오늘 미사 중

**[다가오는 행사]**

**설 명절**

- 일시 및 장소 : 1.26미사 후~1Pm, 친교실
  - 일정 : 1)공동체 어르신들께 세배예절  
2)전통놀이(요셉회 주관)
-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이날의 모든 단체별 모임은 설 행사로 대체됩니다.

**설 합동 위령 미사**

- 신청 : 친교실 안내데스크(연령회 담당)
  - 마감 : 오늘
- ☺ 이름을 바르게 써 주시고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찬양·치유 미사**

- 일시 : 1.26(주일) 5pm (뉴저지 주최)
- 장소 : 가톨릭 센터 / 준비물 : 없음
- 주최 : 미동북부 성령쇄신 봉사자협의회 뉴저지 지구

**주님 봉헌 축일 초 예약 판매**

2월 2일 주님 봉헌 축일을 맞아  
학부모회가 각 가정에서 1년간 사용할  
초를 주문 판매합니다.  
마감 : 1.26(주일)  
신청하신 초는 2월 2일(주일)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를 보내주세요.**

잔잔한 일상에 가슴을 뛰게 하거나,  
우울한 날, 지친 날에 삶을 다독이던,  
여러분에게 얼어붙은 바다를 쪼개는 도끼였던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다?  
그 흔적을, 울림을 공유하고 싶은 분을  
기다립니다.  
◦ 원고의 분량 : letter 사이즈 1장 이내.  
(글씨크기 11포인트, 줄 간격 160%)

**한국학교, 주일학교 교사**

- 한국학교 문의 :  
김민정 세라피나(917.887.5040)
- 주일학교 문의 :  
김가연 크리스티나(347.882.2244)

**청년 성가대 단원 및 반주자**

- ‘처음처럼’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청년성가대는 매달 4번째 주일 미사를  
담당하며 매주 주일 1시 반에 연습합니다.
-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연습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는 음악 전공자를 찾고 있습니다.
- 문의 : 정동혁 미카엘(카톡 : cdh306)

**야훼이레 청년 찬양팀 음악피정**

주님 안에서의 ‘침’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태 11,28)

- 일시 : 2.1(토) 4-7pm
- 장소 : 다미아노 홀
- 신청서 : 페이스북 청년회 페이지 참조  
신청서 싸인업해야 자리가 확정됩니다.
- 문의 : 이재인 베로니카  
(카톡 : thegreatja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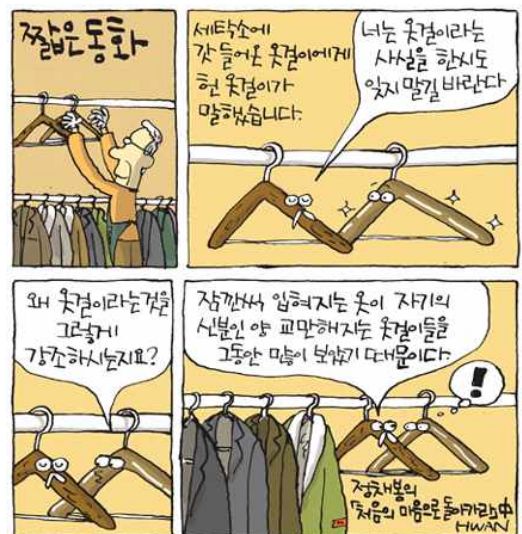
**지난 주일 우리들의 정성**

	\$ 2,250
교무금	정민영 민재인 김영빈 조완준 박정은 선명희 김성중 김기레 김한숙 최우석 이정진 배인순 강혜숙 송준호 김성모 김승범 마봉한 정현숙 강순기 박성현 김형미
	감사헌금 \$ 100 강혜숙
	합 계 \$ 2,350

❖ 꽃봉헌 : \$ 0

**1월 성경 공부**

수요일 휴강		
주일 (19)	오후 1:30-2:50	코리안 컨퍼런스룸



[성경구절]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먼 이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였다” (마르 10,51)

‘무지개원리’ 저서로 유명해지신 차동엽 신부님의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신(神)이란, 특히 그리스도교에서의 창조주 하느님은 체험의 존재이지 누군가 증명하여 밝혀지는 존재가 아니다.’

신부님과 친분이 있지는 않았지만 신부님의 저서들을 여러 권 읽고 한때는 신부님의 강의 동영상을 무한반복으로 돌려보던 저로서는 얼마 전 신부님의 서거 소식이 개인적으로 다가왔고 존경하는 멘토 한 분을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죽음이라는 단어와 함께 체험의 존재이신 하느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부님의 말씀처럼 어쩌면 제 삶은 하느님과의 만남을 체험하는 시간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 체험의 한 가운데에서 하느님을 느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아차리게 되는 체험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행운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고통스럽다며 불평했던 일들이나, 불안하고 초조한 시간을 지나 심지어 지루하게만 느낀 시간들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이 아주 세심하게 제 삶에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느님의 존재를 체험하면서 살 수 있다면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가끔 폭풍우가 다 지난 후에 깨닫는 이러한 체험들은 ‘나만의 하느님’을 만나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아온 존재였구나. 그러니 내일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겠다!’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문득 제 가슴을 스친 이 음성은 놀라왔지만 잔잔하면서도 포근했습니다. 서른 중반에 심각한 병을 앓고 있지도 않았고 금전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여유로웠던 어느 평범한 오후, 그 음성은 죽음을 바라보던 제 시야를 변화시켰고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모두 덤으로 주어지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되니 제가 항상 집착했던, ‘나는 언제 어떤 사람이 되어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될까?’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어떻게 살까?’라는 질문이 제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나의 하느님’은 내가 갖게 될 학위나 직위 보다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지에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커다란 존재가 저와 비슷하게 생긴 평범한 모습으로 다가와 종종 묻습니다. ‘완준아, 바오로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줬으면 좋겠니?’ 그럴 때면 저는 또 다시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온갖 것들로 리스트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리스트를 건네 드리려 할 때면 부끄러워지는 제 손을 뒤로하고 이렇게 대답할 때 제 마음이 오히려 편해지곤 합니다. ‘그냥 이렇게 저에게 매일 말 걸어주세요. 그러면 든든합니다.’

예수님을 마주한 눈먼 이는 빛을 되찾은 후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다시 볼 수 있어 좋기도 하였겠지만 빛의 주인이신 예수님 곁에 늘 있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저도 마음의 눈이 멀어 어둠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든 빛이 나올만한 통로를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그 빛을 마음껏 선사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한 후부터는 잠시 캄캄한 길을 걸어도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몇 발자국 근처에 계시는 그 분을 다시 부르면 되니까요 ♠

본당 게시판

[행사 후기]

♡1.12 울뜨레아 신년교례회  
지난 주일 마돈나 성당에서 있었던 울뜨레아 신년교례회에 본당에서 23분이 참석하였습니다.  
미사로 시작하여 신년하례식, 식사와 친교로 이루어진 시간 안에서 흥겨운 만남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특별히 명불허전 채봉석 그레고리오 님의 진행, 김성인 신부님표 나훈아의 “영영”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달구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경품티켓 증정의 시간도 있었는데, 우리본당에서는 유일하게 신헬렌 자매님이 당첨되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축하합니다]

♡성경통독하신 분  
故김영복(아네스) 김애희(테클라)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김화자(소화테레사) 정인해(예로니모)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이종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테레사)  
정창동(폴리나) 김용기(요셉)  
김동희(헬레나) 고종호(마태오)

[감사합니다]

♡'성경말씀과 나' 원고내신 분  
“당신 말씀은 제 발의 등불,  
저의 길에 빛입니다.”  
(시편 119,105)

조완준(바오로)